

서한 띄우고 자사주 사고... 주주환원책 강화

코로나19에 몸 사리는 주주 재계, 주총장 모시기 안간힘

주주총회를 앞둔 재계가 주주 서한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공포에 휩싸인 주주들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주주들에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앞선 조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김기남 부회장과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 이름으로 주주총회 전 공동 서한을 통해 위기 극복 의지를 소개한 바 있다.

서한은 김기남 부회장 이름으로 작성됐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020년을 '100년 기업' 원년으로 공언한 상황이며, 전 임직원이 한 뜻으로 미래 반세기를 준비하겠다는 결의도 내비쳤다.

주주 중심 경영 방침도 분명히 했다. 지난 2월 최초로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했다고 시금 강조한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도 임직원과 고객, 협력사와 사회에 성과를 나누고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대자동차도 지난 4일 주주들에 서한을 보냈다.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원희 사장 명의로 발송됐으며,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현대차는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차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과감하고 근본적인 원가 구조 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불확실성과 경기침체에 맞선 해법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향한 2025



삼성전자는 제50기 주주총회를 열고 소액주주들 목소리를 경청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현대차, 주주에 서한 주주중심 경영 방침 의지 담아 SK, 90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전략 실행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포부로, 전동화와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본격화하며 '고객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동차 회사'가 되겠다고도 다짐했다.

주주권익을 위한 여러 노력도 다시 한 번 소개했다. 지난해 정기주주총회로 이사회 규모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가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했을 뿐 아니라,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 선임 및 보수위원회 신설 등으로 의사결정체계를 투명하게 발전시켰다는 내용이다.

SK그룹 지주사인 SK(株)도 9일 주주 서한을 통해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장동현 사장 이름으로 발송했으며 주주환원 강화 의지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주주총회는 오는 25일 열 예정이다.

SK는 지주사 의무를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며,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지난해 성과를 근거로 들었다. SK바이오팜의 1000억원대 매출 돌파와 SK팜테코 설립 및 SK실트론의 듀폰 SiC 사업부 인수 등이다.

SK는 이를 통해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배당을 주당 5000원으로 유지했고 9000억원 규모 자사주도 매입했다며, 앞으로도 배당 수익을 기본으로 이익을 실현하면 일부를 주주에 공유하는 적극적인 배당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도 주요 사업 방향으로 정했다. SK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경영 체계 전반의 과감한 혁신을 전제로 한다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계는 이달말 연달아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가 주총과 사업 보고서 지연 발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는 일정을 바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마스크에 무너진 민심



기자 수첩

이 세 경
(유통&라이프부)

이쯤되면 헛갈리기 시작한다. 이 '난리통'의 원인이 코로나인지, 아니면 마스크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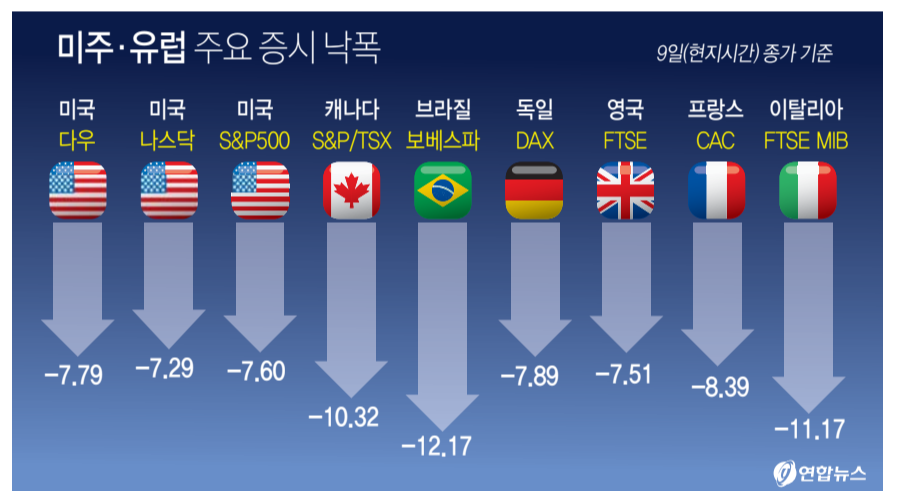
시작은 분명 KF94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는 비말(침방울)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면 마스크보다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가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때가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지난 달 18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짓말처럼 폭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중엔 마스크가 없었다. 국내 재고 수천만장이 이미 중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대중국 마스크 수출액이 두달 만에 200배나 늘었다. 정부가 알지 못했겠지.

마스크 대란은 뻔한 결과였다.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일일 1000만장, 주당 7000만장이다. 이 중 공적 물량으로 80%(5600만장)가 공급된다면,

5200만명 국민의 뒀은 고작 일주일 한 장 꼴이다.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주당 2장씩 배급하는 '마스크 5부제'를 맞추기도 사실상 뼈대한 수량이다.

도무지 방법이 없자 정부가 말을 바꿨다. 보건당국은 마스크를 '한시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애매한 대책을 내놨다. 여당 대표는 보건용 마스크를 3일간 재사용할 수 있다 했고, 국무총리는 아예 면 마스크를 쓰자고 독려했다. 급기야 사람 간 거리를 지키고 손을 잘 씻는다면 마스크는 안써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졌다. 국민들엔 그저 '아무말 대잔치'다.

난리통의 책임은 애먼 약국이 지고 있다. 마스크를 사지 못한 노인은 "약국 무너져라"며 약담을 퍼부었다. 고객이 무서워 마스크도 못쓰고 일하던 약사는 "사람들이 점점 좀비같이 변해간다"고 했다. 누구의 잘못도 없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일 뿐이다. 국민들은 귀를 닫았다. 서로를 위해 내뿜을 양보하고, 해외직구로 중국에서 마스크를 산다. 촛불을 들었던 민심은 마스크에 무너지고 있다. /seilee@



시장 불안·변동성 지속 전망 이주열 “금융안정 적극 대응”

>> 1면 '한치 앞 모를 지구촌'서 계속

영국 FTSE 100 12년 만에 최대 낙폭

영국 FTSE 100(7.69% ↓), 프랑스 CAC 40 지수(8.39% ↓), 독일 DAX 30지수(7.94% ↓),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8.45% ↓) 등 유럽 주요 증시도 줄줄이 폭락했다. FTSE 100의 낙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 12년 만에 최대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몰렸다. 9일(현지시간)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역대 최저인 0.318%까지 떨어졌다. 30년물 미 국채 수익률도 0.866%를 기록하며 1% 밑으로 내려왔다. 보통 국채 수익률과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대표적 단기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몰리기도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MMF 설정액은 전월 말보다 15조2000억원 증가한 143조6000억원으로 월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MMF 설정액은 올해 들어서만 40조 원 넘게 폭증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공포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대기성 부동산 성격의 지닌MMF로 자금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MMF는 만기 1년 이내 국공채나 기업어음(CP) 등 단기 우량 채권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으로, 수익률이 높진 않지만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 투자금을 빼거나 펀드를 환매한 투자자들이 잠시 자금을 넣어두기도 한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국제유가 폭락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공포는 극도의 위험회피와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시장 불안과 높은 변동성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특히 중소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대출정책·공개시장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환율 및 외화자금 사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대한항공, 희망 휴직·무급휴가 '허리띠'

외국인 조종사는 '무급휴가'

대한항공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파로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 휴직을 실시한 데 이어 외국인 조종사에게는 무급휴가를 주기로 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만 2년 이상 근속한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 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자는 이달부터 6월까지 기간 중 1~3개월 간 휴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작년 11월 일반 지상직 직원과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 휴직을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 단기 휴직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작년에 희망 휴직을 신청받은 이후에도 직원들의 문의가 이어져 추가로 휴직 신청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외국인 조종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사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사용하는 무급휴가 신청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의 조종사 수는 약 2900명이며 이중 외국인 조종사는 390명 정도다. 이중 일부 외국인 조종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회사 측에 먼저 휴가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내에서 체류하는 것에 대해 건강 우려를 표하는 외국인 조종사들이 늘고 있어 자국 내 체류 또는 휴가 사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